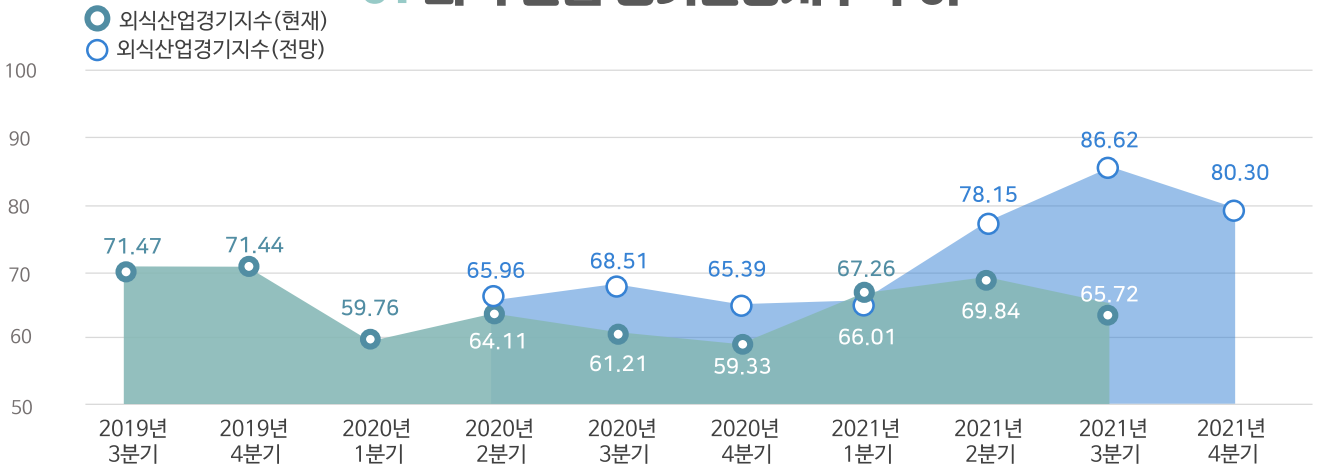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본 보고서는 [The 외식]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atfis.or.kr>)

01 외식 산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2021년 3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큰 폭 하락

2021년 3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2분기 대비 4.12p 하락한 65.7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외식산업경기지수가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3분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9월까지 사적 모임제한 인원이 강화되었고, 7월 도입 예정이었던 백신 인센티브제가 연기되면서 외식업계의 경기는 또 한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또한 3분기 전망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60%대의 백신접종율과 4분기 정부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준비로 인한 기대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 미래 전망지수는 보통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인해 경기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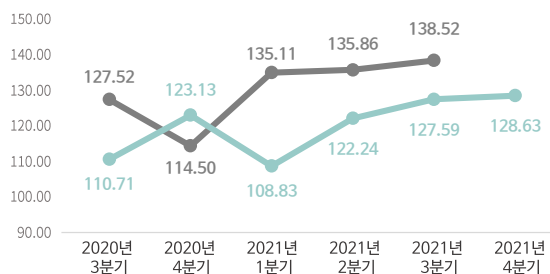


02 기타 외식산업지수

식재료 원가지수

● 식재료원가지수(현재)
● 식재료원가지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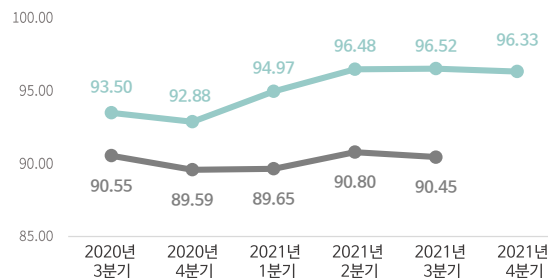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외식업체의 식재료 원가지수 또한 3분기 138.5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외식업체는 경기 악화와 더불어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수

● 고용지수(현재)
● 고용지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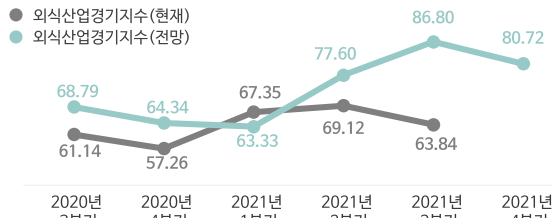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악재를 맞고 있는 외식업체의 고용지수는 3분기 90.45로 나타나 외식업체의 고용침체 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03 주요업종별 외식 산업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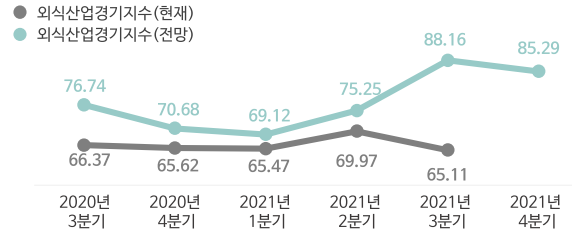
한식음식점업 경기지수 하락 폭 크게 나타나

한식음식점업의 3분기 경기지수는 63.84로 지난 2분기 대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던 한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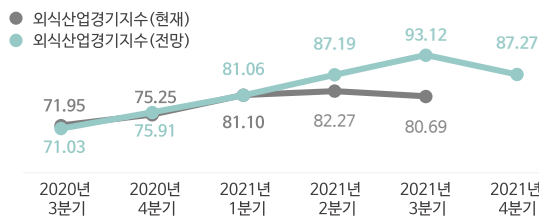
중식음식점업 중식음식점업 경기지수 1분기만에 원점으로

지난분기 낮은 반등을 보였던 중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가 다시 1분기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3분기 중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65.11로 지난 2분기 대비 4.86p 하락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관구내식당업 기관구내식당업 경기지수 약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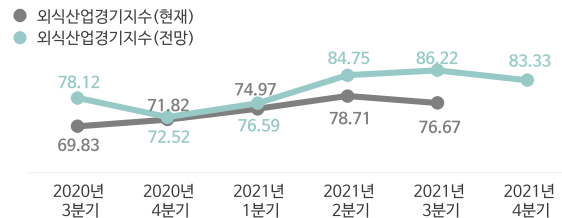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기관구내식당업의 경기지수가 2분기째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구내식당업은 타 업종 대비 안정적인 경기지수를 보였으나, 지난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전반적인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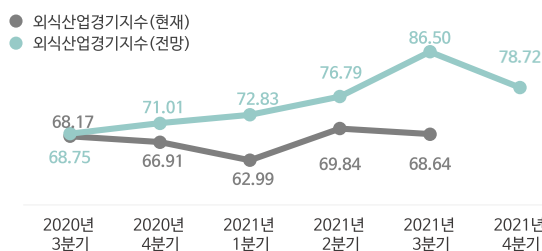
점진적 경기 회복세 이어나가지 못해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경우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3분기 76.67로 하락하였으며, 다음분기에서는 반등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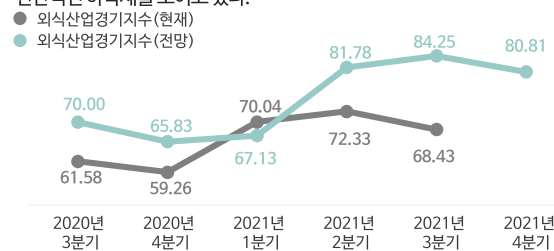
치킨전문점 치킨전문점 경기지수 한숨 쉬어가

지속적인 경기지수 하락세 이후 2분기 반등세를 보이던 치킨전문점의 경기지수는 3분기 68.64로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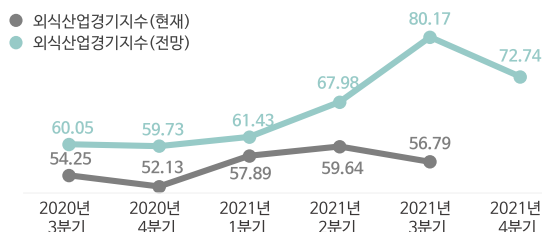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경기회복세 꺾여

지난 1분기 큰 폭의 경기지수 회복세를 보인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2분기 소폭 상승 이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떨어져 경기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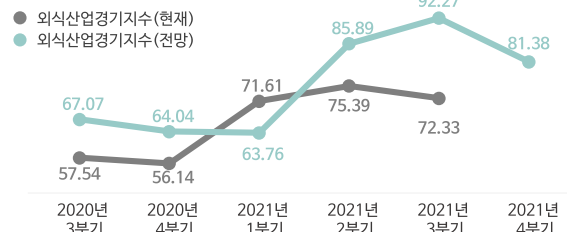
주점업 주점업 경기지수 다시 하락

외식산업 중 가장 낮은 경기지수를 보이는 주점업의 3분기 경기지수는 56.79로 나타나 회복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 비알코올음료점업 다시 하락세?

외식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지수를 보이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기지수는 3분기 72.33으로 나타났으며,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또한 81.38로 크게 하락해 경기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04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지수

2021년 3분기의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세종특별자치시(76.59), 대구광역시(69.80), 광주광역시(67.45)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지수를 보였으며, 울산광역시(62.25)와 부산광역시(62.64)에서는 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1년 3분기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적었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타 지역대비 크게 높았으며, 4분기 전망치 또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외식산업 경기지수 상위 지역 (상위 3개)

 세종특별자치시 76.59

 대구광역시 69.80

 광주광역시 67.45

외식산업 경기지수 하위 지역 (하위 3개)

 울산광역시 62.25

 부산광역시 62.64

 대전광역시 63.60

경기전망지수(4분기) 상위 지역 (상위 3개)

 세종특별자치시 85.49

 광주광역시 8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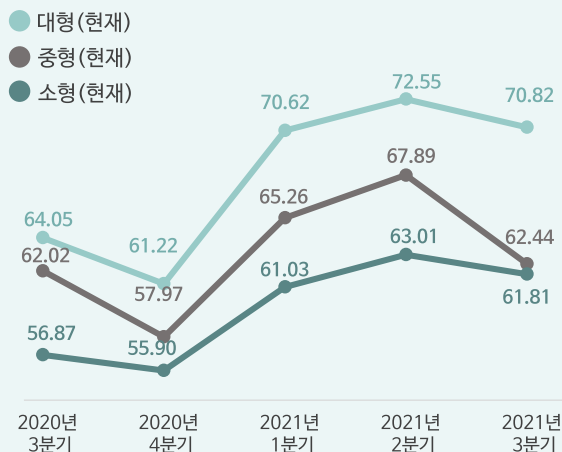
 전라남도 83.10



05 매출액 규모별 외식산업경기지수

매출액 규모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70.82, 중형 62.44, 소형 61.81로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의 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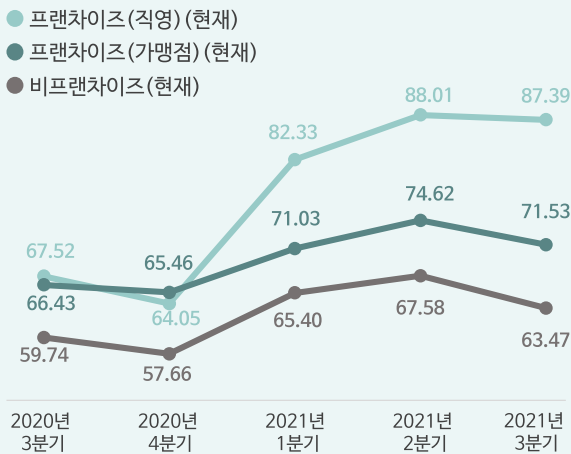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규모에서 경기지수가 하락하였으나, 특히 중형 업체의 경기지수가 5.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식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중형 규모업체의 경기지표가 소형 규모의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06 운영형태별 외식산업 경기지수

운영형태별 외식산업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직영)’ 업체가 지난분기 대비 0.62p 하락한 87.39, ‘프랜차이즈(가맹점)’은 3.09p 하락한 71.53, ‘비프랜차이즈’ 업체는 4.11p 하락한 63.47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조직적 대응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직영)’업체의 경기지수는 약보합세에 그치는 반면, 개인사업자 위주인 ‘비프랜차이즈’ 업체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7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통계명	세부 항목	2021년			202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제 일반	경제성장률 Q	실질성장률 (%)	0.8			-		
		민간소비 증감률 (%)	3.6			-		
	경기종합지수 M	선행지수	126.3	127.2	127.9	128.1	128.2	-
		동행지수	116.3	116.6	116.8	117.0	117.2	-
후행지수		119.5	120.0	120.4	120.8	121.1	-	
경기 동향	기업경기지수 M	제조업	96	96	98	97	95	90
		비제조업	82	81	81	79	81	79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M	전 산업	80.5	83.7	80.5	78.9	73.6	78.0
		숙박 및 음식점업	69.7	70.5	59.4	76.1	44.0	47.9
	소상공인동향조사 M	소상공인(음식점업)	52.0	54.7	55.5	25.4	29.4	51.6
		전통시장(음식점업)	43.8	47.2	49.1	21.0	25.3	56.5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Q	현재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69.84			65.72		
	소비자동향조사 M	소비자심리지수	102	105	110	103	103	104
		소비지출 전망	106	108	113	108	107	109
		외식비지출 전망	90	93	97	91	91	93
	가계동향조사 Y	가계소비지출(만 원/월)	2,475			-		
가계식사비지출(만 원/월)		33.2			-			
서비스업동향 M	숙박 및 음식점업	8.3	-2.1	-0.6	-7.5	-	-	
서비스업생산지수 M	음식점 및 주점업	79.9	86.1	84.9	93.8	80.2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M	총 지수	107.39	107.46	107.39	107.61	108.29	108.83
		식료품	121.54	120.84	119.49	119.37	122.42	125.04
		비주류	103.26	103.54	103.32	103.88	103.41	104.15
		주류	112.13	112.24	112.43	112.60	112.88	112.58
		음식 서비스	113.02	113.19	113.47	113.78	114.15	114.66
	생산자물가지수 M	총 지수	108.06	108.65	109.22	110.28	110.72	-
		음식점 및 주점	114.82	114.96	115.20	115.49	115.75	-
노동과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M	실업률 (%)	4.0	4.0	3.8	3.2	2.6	-
		고용률 (%)	60.4	61.2	61.3	61.3	61.2	-
	외식업 사업체 노동력 조사 M	임금(만 원/월)	180.7	180.6	179.6	183.9	-	-
		근로일수(일/월)	19.4	18.3	19.3	19.4	-	-
		근로시간(시간/월)	151.5	143.0	150.8	152.5	-	-
	외식업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B	음식서비스 관련직 부족률 (%)	2.6			-		
		주방장 및 조리사 부족률 (%)	2.2			-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부족률 (%)		3.0			-			
식재료 가격 (월평균)	곡류 D	쌀(원/kg)	3,000	3,055	3,062	3,086	3,066	2,866
		양파(원/kg)	2,920	2,084	1,939	1,937	1,951	2,086
	채소류 D	배추(원/포기)	5,211	3,736	3,213	3,390	4,393	5,396
		무(원/개)	1,445	1,587	1,643	1,762	2,183	2,046
	수산물 D	물오징어(원/마리)	4,710	4,625	4,743	4,687	4,631	-
		건멸치(원/kg)	28,690	28,780	29,420	29,620	229,200	28,730
	축산물 D	계란(원/30개)	7,505	7,389	7,535	7,477	6,949	6,541
		닭(원/kg)	5,471	5,433	5,309	5,558	5,693	5,185
		돼지(원/kg)	22,340	24,510	25,430	25,990	126,070	26,350
		소_국산(원/kg)	100,030	100,810	101,700	100,740	99,170	103,040
소_미국산(원/kg)		24,460	24,520	24,930	25,620	25,770	26,090	
소_호주산(원/kg)		23,100	23,370	24,810	26,080	26,020	28,490	

코로나19 사태가 외식업체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김영갑 교수

- 한양사이버 대학교 경영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MBA전공 주임교수/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
- aT유통교육원 연구자문위원

2021년 3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65.72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분기 지수 (69.84) 대비 4.12 포인트 낮아진 결과이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외식업 사업자들이 인식하는 경기에 대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를 1년 전 2020년 3분기와 비교하면 4.51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표되는 통계수치와 외식업 사업자들의 1인 시위, 단체행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2021년 4분기가 가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중론이지만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외식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업종별, 지역별, 상권별, 사업장 규모별, 서비스 형태별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3분기와 지수 차이를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업종별 지수 추이를 분석해 보면, 한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은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업종이다. 반면 외국식 음식점업, 주점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수 하락폭이 큰 업종에 속한다. 업종 관점에서 보면, 외식업체는 야간 시간대보다는 주간 시간대의 고객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외식업경기전망지수는 2020년 1분기부터 측정한 점을 고려하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세종시가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하였고 이어서 대구시와 경북의 상승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지수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시였으며, 이어서 경남과 충남이 뒤를 이었다. 지역 관점으로 보면 기존의 외식업체가 개선할 방법은 없으나, 신규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지역별 경기 추이를 분석하고 창업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상권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수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대학 및 학원가로 나타났다. 이어서 오피스, 유통센터 상권의 하락폭이 컸다. 반대로 지수 하락폭이 가장 낮은 상권은 유흥 상업지이고 이어서 저밀도 주거지, 고밀도 주거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권은 기존 사업자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그러나 상권을 목표 고객 관점으로 보면 현재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개선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간에는 직장인이나 주부를 타깃으로 정하고 주말에는 가족 고객을 타깃으로 정해서 매장의 메뉴와 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넷째, 규모별로는 중형에서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객단가에서는 고가의 점포가 지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규모와 객단가 관점에서 외식업체는 다운사이징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점포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형태별로는 배달서비스와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체의 지수 하락이 낮았고, 완전 서비스와 제한적 서비스 외식업체의 지수 하락은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업체들의 성장율이 대면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대부분 알고 있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홀 서비스 중심의 외식업체들이 배달과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도입하기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기존의 홀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달과 테이크아웃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잘 조절해야 한다.



국내 외식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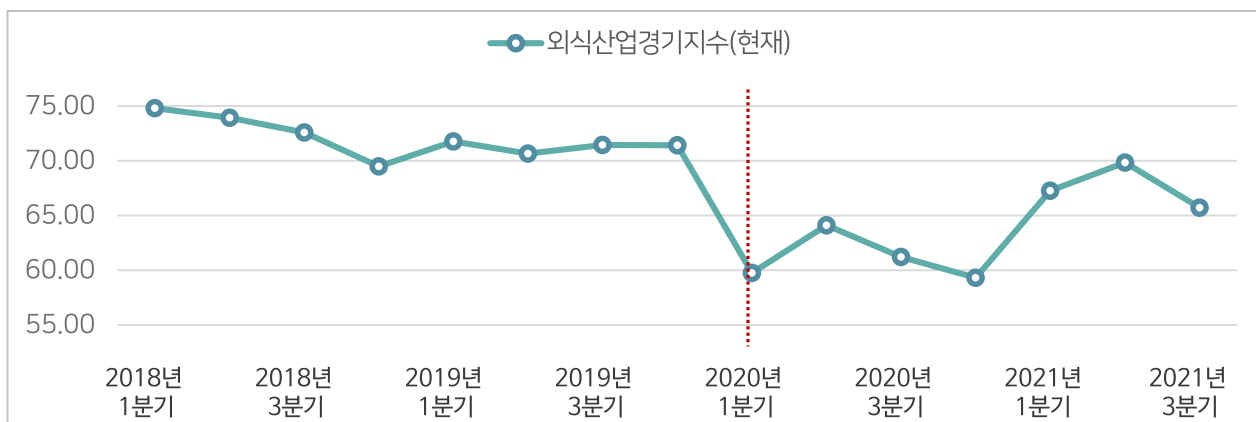
최철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 한국 소비자 정책교육학회 상임이사

2020년 초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쉽게 예상하지는 못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대부분 경제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내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모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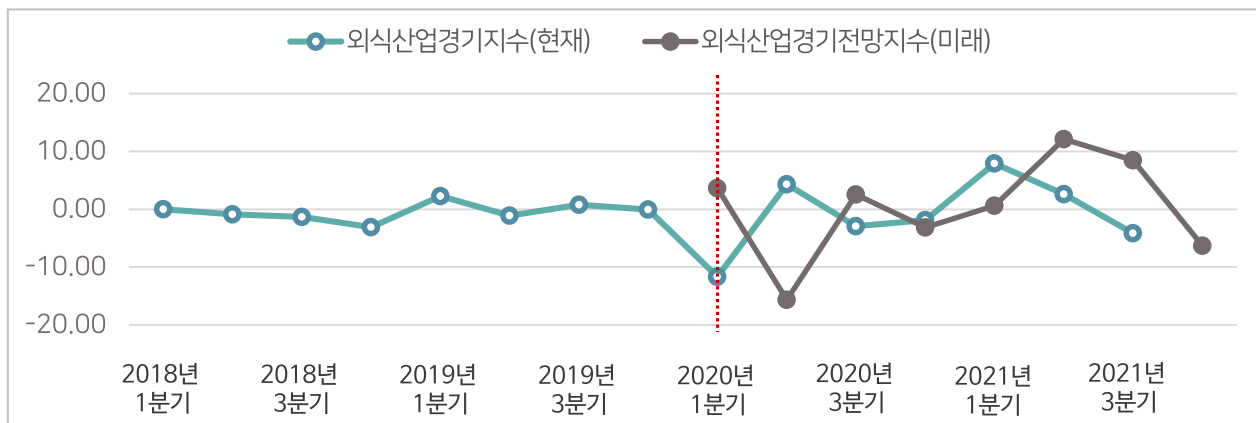
물론 많은 산업들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았지만 외식산업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들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으로 가급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 소비가 줄어든 측면도 있겠지만 외식산업의 경우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 외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1년 국세 통계 수시 공개 자료를 근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계한 업종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음식점업의 총 사업자 수는 776,089명이며 이 중 96.8%(751,008명)가 개인사업자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157,634명의 개인사업자가 신규 진입하였고 135,926명이 폐업을 하여 폐업률은 18.6%(법인사업자는 18.9%)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전 업종 평균 11.8%(전 업종 법인사업자의 경우 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림1. 외식산업경기 지수 추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하는 국내 외식산업경기지수와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각각 현행 분기와 다음 분기에 대하여 매출액, 식재료 원가, 종업원 수의 최근 변동 현황과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1>에서 2018년 1분기부터 최근 2021년 3분기까지의 경기지수 시계열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지수 패턴이 상이하며, 특히, 2020년 1분기부터 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실제로 현행 분기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2021년 1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았으나 2021년 3분기 다시 하락한 것이 주의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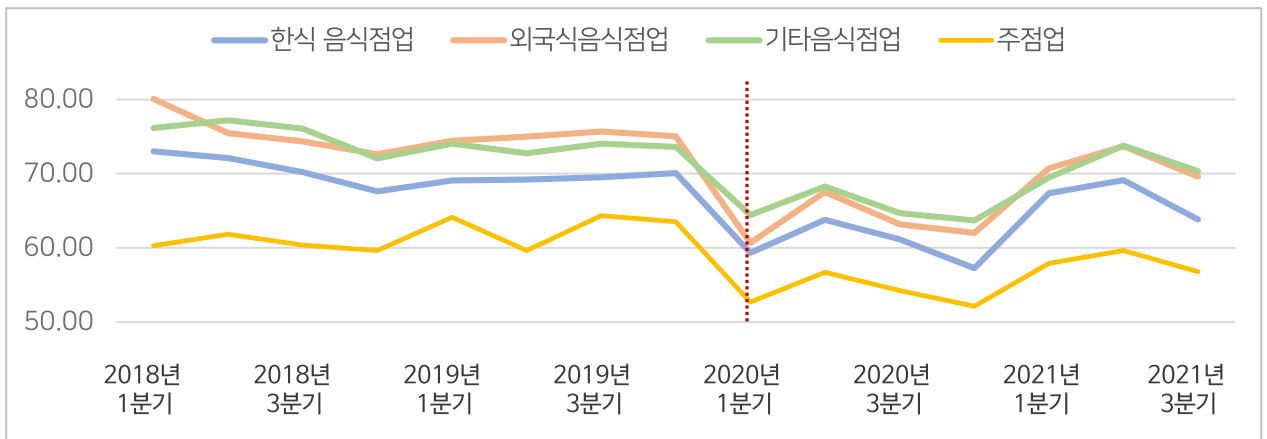
<그림2. 외식산업경기지수와 경기전망지수 변동분 추이 비교>



아울러 <그림 2>에서 외식산업경기지수의 변동분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추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에는 변동분이 0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더 크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의 자료를 살펴본다면 아마 그 추이도 큰 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외식산업경기지수의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일부 계절적인 변동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 전후의 패턴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더 증대된 것을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보다 중요하게는 외식산업 매출액의 변동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외식산업경기지수와 경기전망지수의 관계이다. 코로나 이전의 경기전망지수는 자료가 없어 전후의 비교는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경기전망지수 역시 그 변동분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기지수 변동분과 교차하는 지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분기에 대한 전망과 실재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암시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확실성의 증대로 예측이 빗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림 3>은 음식점 종류별 외식산업경기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 추이는 대체로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종류별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외국식 음식점의 경기지수가 대체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점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3.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지수 비교 >



백신 접종 완료자 비중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의 위협 속에서 당분간 외식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아울러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외식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